생활SOC 데이터 통합 구축 완료

전주시, 3299개 시설 공간정보 DB로 구축… 생활지리 정보 연동키로

전주시가 각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그간 분산·관리해온 3299개 시설을 생활SOC 공간정보 DB로 구축함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보육시설, 도서관, 병원, 약국,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서 간 공유를 통해 생활SOC 데이터에 대한 통합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개 부서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생활SOC 자료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교육·의료·문화·공공시설의 5개 분야의 33종의 자료를 수집해 2개월의 정제 작업을 거쳐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관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장애인교육기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약국 △보건소 △종합·일반병원 △약국 △시립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생활문화공간 △문와의집 △박물관 △미술관 △공영주차장 △공원시설 등 33종의 공간정보 3299개소가 담겨있다.

시는 구축된 생활SOC 공간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생활지리정보(map.jeonju.go.kr) 사이트에 탑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SOC 공간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시설 중 가장 가까운 시설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생활SOC 공간정보가 전주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공공SOC사업이나 스마트시티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어 시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희곤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생활SOC 공간정보가 행정 내부용이 아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등 행정자료 구축을 확대해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뮤지컬 '팥죽할머니의 지혜' 출연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팥죽 할머니의 지혜'

전주 법인어린이집 연합회 안전사고예방 뮤지컬 관람

전주시 법인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정근)는 4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법인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 1000여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뮤지컬 '팥죽할머니의 지혜'를 관람했다.

뮤지컬 '팥죽할머니의 지혜' 공연은 힘없는 약자들이 힘을 모아 묘안을 짜내 강자를 물리쳐 '협동'을 배우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혜를 유쾌하게 담은 공연으로, 이날 참석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은 재미있는 공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법을 익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꿈동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온 '광명어린이집' 등 우수보육시설 11개소의 보육교직원 11명에게 표창장도 수여했다.

이정근 시 법인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기본 규칙과 안전습관을 아이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재밌는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규칙과 안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게 섯거라'

전주시, 내일까지 진행 에코시티 포레나 당첨자 계약 기간에 집중 단속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가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공동주택 1년 간 전매제한' 규정을 무시한 불법중개 행위 및 불법거래가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시기인 3일간 시·덕진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전매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노인 권익신장 복지증진 기여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 박윤정 의원, 'NGO 노년 유권자연맹 의회발전 대상'

전주시의회 부의장 강동화 의원(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과 박윤정 의원(비례대표)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의회발전부문 대상'을 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전주시지회 주관(회장 김지환)으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경로효친대상 시상식'에서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발전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두 의원은 평소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행 실천에 앞장서며 노인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노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헌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경로효친 특별상을 수상한 두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청 "동료와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순경 조사 중"

현직 경찰관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전북경찰이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순경이 '동료 여경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 대화방에 공유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전북경찰청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해당 영상의 실체를 확인했다"면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밤을 밝히는 '청사초롱'과 함께

전주시, 내달까지 덕진공원서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전북 대표관광지로 조성중인 전주덕진공원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밤마실을 즐기고 가을추억을 만들 수 있는 청사초롱이 불을 밝힌다.

전주시는 전주덕진공원에 연꽃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청사초롱 200개를 설치하고 청사초롱 체험과 야간공연을 연계한 덕진공원 청사초롱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덕진공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사초롱 이벤트는 덕진공원만의 생태적·문화적·역사적 특징을 음양화합과 새 출발의 상징인 청사초롱에 담아 제작해 해질 무렵부터 저녁까지 청사초롱을 점등해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사초롱 이벤트 기간 중 △전주 덕진공원을 주제로 한 SNS사진 공모전이 진행되고 △포토존 설치, 한지등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SNS사진 공모전은 전주 덕진공원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전주 대표관광지, #덕진공원, #가을추억 해시태그 추가)에 등록해 현장에서 제시하거나, 해당 SNS 주소를 이메일(leesjclick@daum.net)로 송부하면 된다. 덕진공원을 방문한 내·외국인 누구나 행사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덕진공원의 숨겨진 매력을 공유하고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을에도 덕진공원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깊어가는 가을밤 청사초롱이 아름답게 불 밝히는 덕진공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하면서 가족, 연인,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정신'에 나만의 色 입혀보세요

시, 내달 1일까지 '꽃심 전주 컬러링 색칠대회'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 속에 전주정신인 '꽃심'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다.

시는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4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2019 꽃심 전주 컬러링 색칠대회'를 개최한다. 시가 지난 2016년 시민들과 함께 선포한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전주'는 전주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 4개의 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정신으로, 故 최명희 작가가 '혼불'에서 쓴 것처럼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으로 싹을 틔워내는 강인한 힘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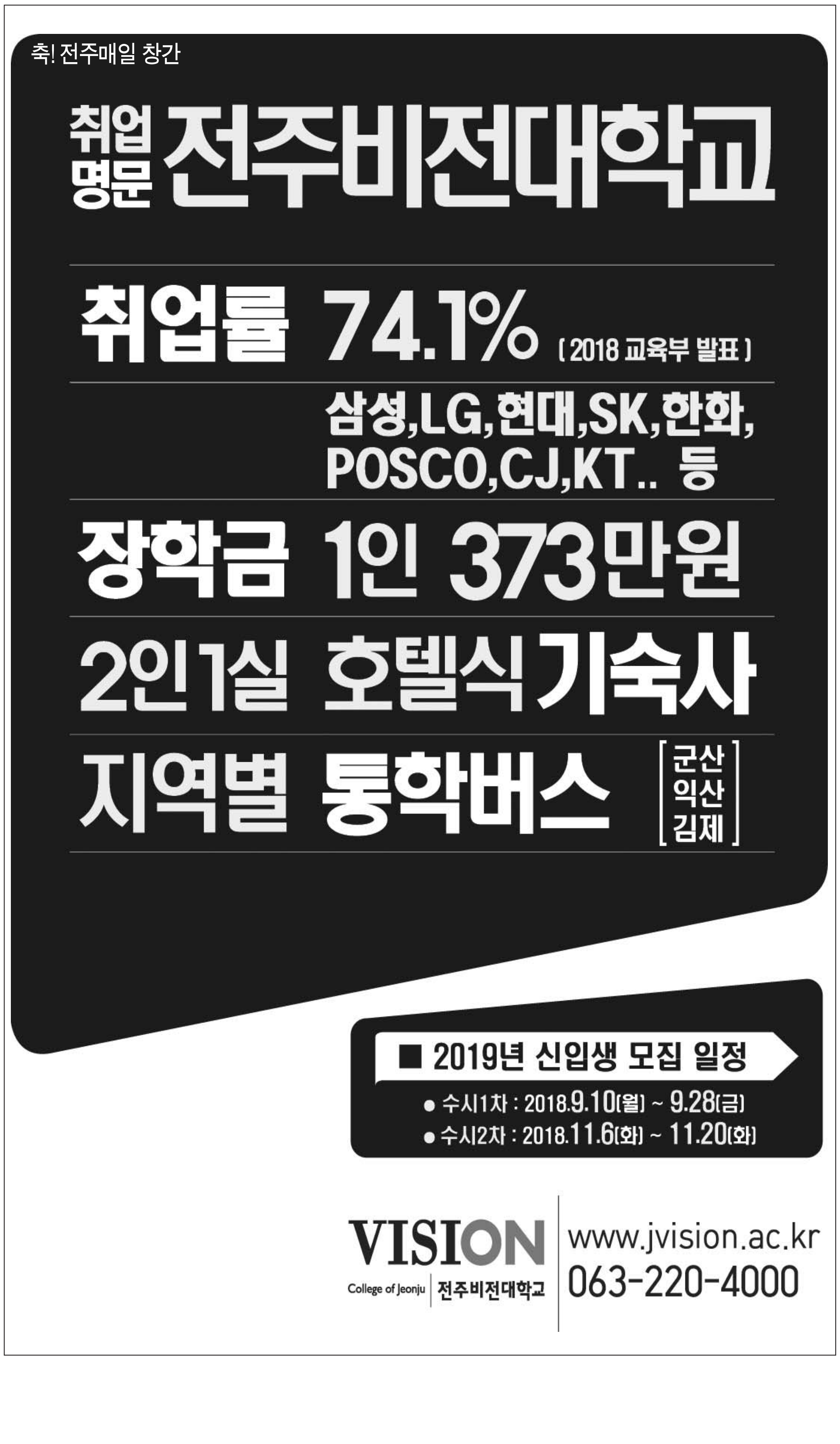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전주정신 꽃심 그림 도안을 채색한 후 신청서와 함께 완성작품을 시청 8층 교육청소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jeonjuspiri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대회 방식은 전주정신의 주제가 담긴 총 10종의 일러스트 중 1개를 선택하여 응모하면 된다.

도안은 전주정신인 '꽃심'을 비롯해 꽃심을 구성하는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의 4개의 정신을 포함한 5개를 주제로 각각 2종씩 10종으로 구성돼 있다.

꽃심에는 △덕진연못 연꽃 개화 △한옥마을 전경 그림이 담겨있으며, △비빔밥 △경기전과 전동성당(이상 대동) △한벽당 △전주기접놀이(이상 풍류) △전주향교 은행나무 △전주공예품전시관 지우산(이상 올곧음) △태조어진 △자만마을벽화그림(이상 창신)이 도안으로 제시됐다.

그림은 모두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시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그림별로 우수작 3작품씩 총 3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